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147호

전남 농업정보

주간 2017.08.07. - 08.13.

장성군 황룡농원 「무농약 해바라기씨」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01 주간 기상전망 5

- ▶ 7~8일은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9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9~3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4~14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0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세균벼알마름병, 먹노린재,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등
- ▶ 예 보 :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흰등멸구 등

0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 양파 저장동향 및 가격전망
- ▶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0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국산 포도 對호주 수출 식물검역 요건 완화
- ▶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
- ▶ 전남도, 동남아 할랄식품 시장 진출 첫 발

0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4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0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6

- ▶ 단감 과원의 수고 낮추기에 의한 생산비 절감 효과
- ▶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 시 추비관리 방법
- ▶ 고식이섬유 무화과 열매의 발효방법
- ▶ 정원장미(케이원)
- ▶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포획장치 개발
- ▶ 전남농기원·베트남 하우장성과 기술교류협약 체결
- ▶ 사료용 옥수수 적정 수확시기 놓치지 마세요
- ▶ 오디균핵병 저항성 뽕 품종 『심강』 육성
- ▶ 사용 편리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
- ▶ 신규·소면적용, 무인기 활용 농약 늘려
- ▶ 벼 병해, 예찰과 방제에 더욱 주의해야
- ▶ 발효사료, 물 양만 조절해도 대장균·잡균 못 자라

07 정책 동향 31

- ▶ 수용성비타민 6종 동시분석법 개발로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 ▶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0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5

- ▶ 순천시, 산지 원예체험장 포도 수확체험
- ▶ 광양시, 새콤달콤한 매실의 무한 변신 웰니스팜 파티 열린다
- ▶ 곡성군,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사업 추진
- ▶ 고흥군, 안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유용미생물 활용
- ▶ 화순군, 벼 병해충 기본방제기간 설정 적기방제 당부
- ▶ 강진군, 슈퍼푸드 강진귀리 명품화 위해 예산 30억 투자
- ▶ 함평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
- ▶ 장성군, 농업인들 농약 공동방제가 효자네

09 해외 농업정보 43

- ▶ 독일, 친환경·유기농 시장 지속 성장
- ▶ 대만, 일본·네델란드·스위스산 소고기 금년 내 수입 개방 예정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8.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미국의 연질 붉은 겨울 밀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됨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며 전일대비 0.7% 하락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시장에서의 매득으로 인해 전일대비 0.8%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1% 하락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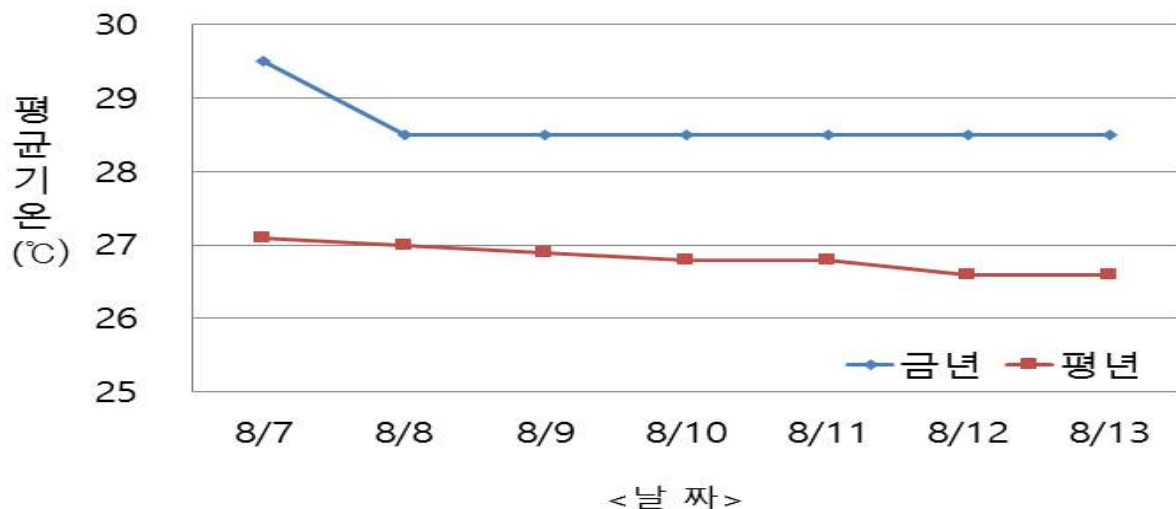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 ▶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농업 심포지엄』 개최 알림
- ▶ 2017국제농업박람회 250여 기업유치 성황 기대
- ▶ 농협, 2017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앞장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8월 07일 ~ 8월 13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8.6℃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32.1℃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25.1℃ (평년대비 1.7℃ 높음)
- 강 수 량 : 9.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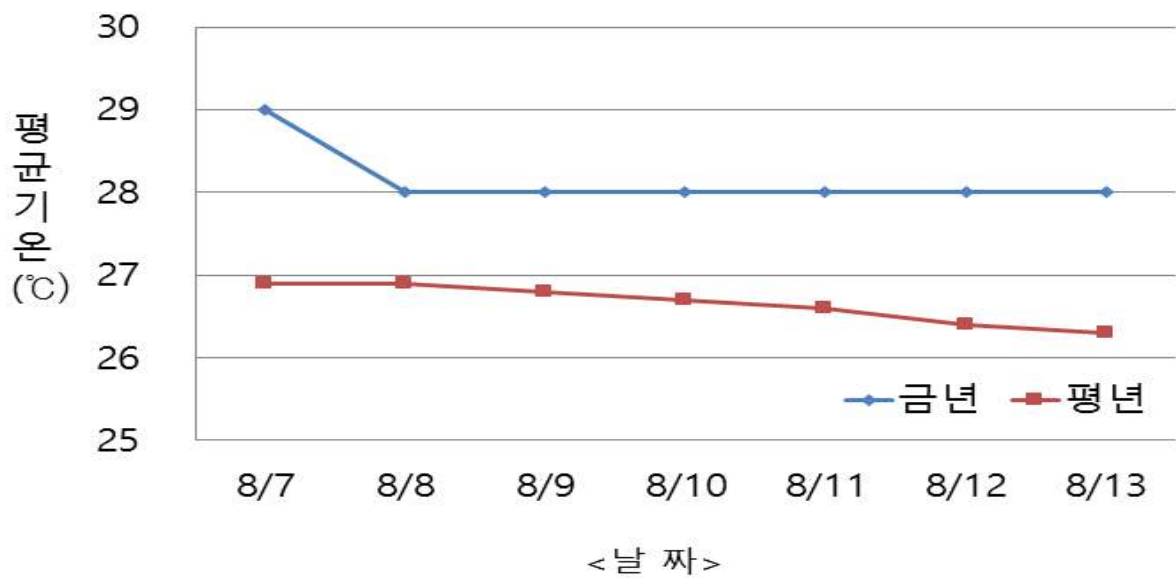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6	26.8	1.8	32.1	31.3	0.8	25.1	23.5	1.7	9.1
8. 07.(월)	29.5	27.1	2.4	33.0	31.8	1.2	26.0	23.6	2.4	6.7
8. 08.(화)	28.5	27.0	1.5	32.0	31.6	0.4	25.0	23.5	1.5	8.8
8. 09.(수)	28.5	26.9	1.6	32.0	31.4	0.6	25.0	23.5	1.5	8.7
8. 10.(목)	28.5	26.8	1.7	32.0	31.3	0.7	25.0	23.4	1.6	8.8
8. 11.(금)	28.5	26.8	1.7	32.0	31.2	0.8	25.0	23.4	1.6	9.5
8. 12.(토)	28.5	26.6	1.9	32.0	30.9	1.1	25.0	23.4	1.6	11.1
8. 13.(일)	28.5	26.6	1.9	32.0	30.9	1.1	25.0	23.4	1.6	10.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8월 07일~8월 13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8.1℃ (평년대비 1.9℃ 높음)
- 최고기온 : 31.1℃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25.1℃ (평년대비 1.4℃ 높음)
- 강 수 량 : 5.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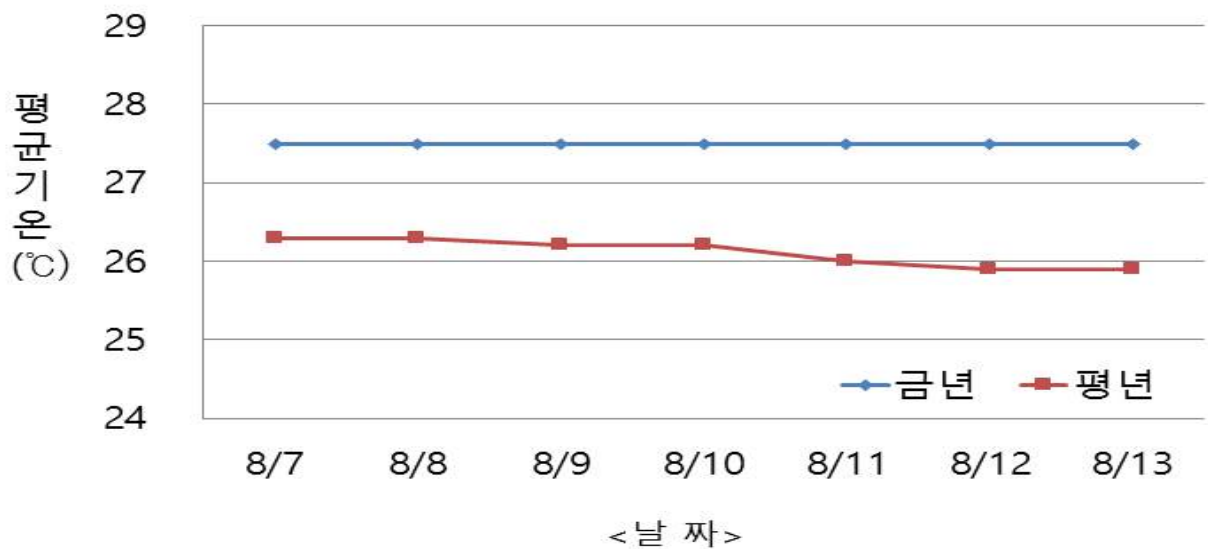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1	26.7	1.9	31.1	30.6	0.5	25.1	23.8	1.4	5.9
8. 07.(월)	29.0	26.9	5.0	32.0	31.0	1.0	26.0	23.9	2.1	4.1
8. 08.(화)	28.0	26.9	1.1	31.0	30.9	0.1	25.0	23.9	1.1	5.5
8. 09.(수)	28.0	26.8	1.2	31.0	30.7	0.3	25.0	23.8	1.2	5.6
8. 10.(목)	28.0	26.7	1.3	31.0	30.7	0.3	25.0	23.8	1.2	5.3
8. 11.(금)	28.0	26.6	1.4	31.0	30.5	0.5	25.0	23.7	1.3	6.8
8. 12.(토)	28.0	26.4	1.6	31.0	30.3	0.7	25.0	23.7	1.3	7.4
8. 13.(일)	28.0	26.3	1.7	31.0	30.2	0.8	25.0	23.6	1.4	6.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8월 07일~8월 13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7.5℃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30.0℃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2℃ 높음)
- 강 수 량 : 10.0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5	26.1	1.4	30.0	29.2	0.8	25.0	23.8	1.2	10.0
8. 07.(월)	27.5	26.3	1.2	30.0	29.5	0.5	25.0	23.8	1.2	6.3
8. 08.(화)	27.5	26.3	1.2	30.0	29.4	0.6	25.0	23.9	1.1	9.4
8. 09.(수)	27.5	26.2	1.3	30.0	29.3	0.7	25.0	23.9	1.1	11.0
8. 10.(목)	27.5	26.2	1.3	30.0	29.3	0.7	25.0	23.9	1.1	9.2
8. 11.(금)	27.5	26.0	1.5	30.0	29.0	1.0	25.0	23.8	1.2	11.0
8. 12.(토)	27.5	25.9	1.6	30.0	28.9	1.1	25.0	23.8	1.2	13.0
8. 13.(일)	27.5	25.9	1.6	30.0	28.9	1.1	25.0	23.8	1.2	10.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8. 01. ~ 08. 15.)

농촌진흥청은 벼의 먹노린재, 세균벼알마름병, 채소류의 바이러스병,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과수의 응애류, 돌발해충, 과수화상병,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구 분		식량작물	원예작물
주 의 보	병	· 세균벼알마름병	·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등 ·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고추 역병, 탄저병
	해 충	· 먹노린재	· 고추 담배나방, 응애류 · 돌발해충(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예 보	병	·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키다리병 등	· 배추 무름병 · 사과·포도 갈색무늬병, 겹무늬썩음병, 노균병 등
	해 충	· 벼멸구, 흰등멸구 · 흑명나방	· 과수 심식나방류 · 노린재류, 총채벌레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월대비 강보합세 전망

- 8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산지가격이 상승한 대서종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전월(kg당 6,420원)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월대비 상승하겠으나, 2017년산 생산량 및 입고량 증가로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 재배의향 : 2018년산 재배의향 전년대비 감소

- 2018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2017년산보다 2~5% 감소하나, 평년보다 0~3% 증가한 23,680~24,364ha로 추정
- 2018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단위 : 천ha, %)

2018년산	2017년산	평년	증감률	
			전년	평년
23.7 ~ 24.4	24.9	23.7	-4.8 ~ -2	-0.2 ~ 2.7

양파 저장동향 및 가격전망

□ 저장동향 : 2017년산 입고량 전년대비 감소 전망

- 2017년산 양파 전체 생산량은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114만 4천톤
- 2017년산 중만생종양파의 저장업체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600원) 및 평년(670원)보다 높은 kg당 850원 내외로 추정

○ 2017년산 양파 생산량

(단위 : ha, kg/10a, 천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7년		19,538	5,858	1,144
2016년		19,896	6,528	1,299
평 년		20,157	6,251	1,260
증감률	전년	-1.8	-10.3	-11.9
	평년	-3.1	-6.3	-9.2

□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월대비 강보합세 전망

- 8월 양파 가격은 전월(1,170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이는 중만생종 생산량 및 입고량이 감소했기 때문

대파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여름, 고랭지, 겨울대파 재배면적 증가

- 여름, 고랭지,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기상여건이 양호할 경우, 9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
- 8~10월 대파 정식의향 면적은 금년 상반기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고, 7월 중순까지 대파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가격전망 : 8월 도매가격 전년과 전월대비 강세 전망

- 8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전년과 전월보다 높은 kg당 1,800원 내외로 전망, 이는 기상여건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기 때문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포도 對호주 수출 식물검역 요건 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와의 국제 협상을 통하여 국산 포도(캠벨 얼리(Campbell Early) 품종)의 검역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종전 수출 검역 요건에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개정된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0호, '17. 7. 25.)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이 호주 수출 가능 지역으로 확대 되었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생산된 포도도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검역본부는 2016년 가평군이 가평군산 포도의 호주 수출 희망 의사를 표명한 후 호주 검역당국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여 금년부터 수출 검역 요건 완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산 포도는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된 이후 수출 물량이 2015년 51톤을 정점으로 2016년 24톤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번 검역 요건 완화를 계기로 수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역본부 민주석 수출지원과장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신선 농산물, 미국·대만 등 본격 수출 개시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8월 3일 조생종 배의 대만·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18년 5월말 베트남 딸기 수출까지, 전국 58개 시군 199개 등록 선과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출 검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수출 선과장 등록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199개소이며, 올해 수출 시즌 수출검역 계획량은 총 40,698톤으로 작년 수출실적(23,623톤) 대비 72% 증가한 물량이다.
- 검역본부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하여, 對호주 포도 수출지역 확대, 선인장 격리재배 면제, 對캐나다 배 수출과수원 요건완화 등 협상을 통하여 수출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 하반기에는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한 EU 수출검역 요령을 제정하는 등 기존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미국·대만·일본에 치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최근에는 중남미 신규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금년 상반기에는 對브라질 배 수출, 對페루 토마토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협상을 완료한 바 있으며, 조만간 국산 신선 배가 브라질 시장으로 처녀 수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년 하반기에는 호접란 및 심비디움 분화의 미국 수출, 딸기의 호주 수출 및 단감의 베트남 수출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전남도, 동남아 할랄식품 시장 진출 첫 발

- 시장개척단 파견해 27만달러 수출계약과 100만달러 MOU 성과 -
- 전라남도는 7월 30일까지 1주일여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 열린 할랄식품 시장개척단을 통해 1천만달러 상담을 진행, 27만달러 수출계약과 100만달러 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동남아 할랄 시장개척단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 지역에서 100여 명의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전복·김·유자차 등 10여 개의 할랄식품에 대해 100여 건이 넘는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할랄식품 시장 진출 정책의 하나로 시행한 첫 번째 시책이다.
- 할랄식품 시장은 2016년 기준 1조 2천억달러 규모로, 세계식품 시장 6조 3천억달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랄식품 시장은 무슬림 인구의 빠른 증가로 2020년 2조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어서 매력적인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 이런 가운데 동남아는 무슬림 인구의 61.7%가 거주하고 할랄식품 시장의 49.7%를 차지하는 전략적 지역이다.
-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 2억 2천만 명으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 내수시장이 매우 크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17억 인구 이슬람 시장의 관문이자 테스트베드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전라남도는 이번 할랄식품 시장개척단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해 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중동 등 할랄식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앞으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8. 0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07)	1주일전 (07/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2,300	32,100	31,940	36,075	41,467	↓ 10.5	↓ 22.1
	콩(백태)	35kg	171,800	171,800	170,800	152,000	163,467	↑ 13.0	↑ 5.1
	고구마(밤)	10kg	33,000	34,200	33,600	30,750	32,093	↑ 7.3	↑ 2.8
	감자(수미)	20kg	35,800	34,400	32,320	20,700	23,007	↑ 72.9	↑ 55.6
채 소 류	배추(봄)	1kg	1,150	1,210	613	-	586	-	↑ 96.2
	양배추	10kg	9,000	7,000	4,180	5,100	6,923	↑ 76.5	↑ 30.0
	오이(다다기계통)	10kg	39,667	45,667	27,067	31,583	28,628	↑ 25.6	↑ 38.6
	애호박	8kg	29,400	25,400	16,960	21,600	19,457	↑ 36.1	↑ 51.1
	건고추(화건)	60kg	690,000	680,000	616,000	637,500	763,333	↑ 8.2	↓ 9.6
	풋고추	10kg	50,400	55,400	40,480	38,600	36,880	↑ 30.6	↑ 36.7
	마늘(깐마늘)	20kg	126,000	128,000	129,000	133,000	111,853	↓ 5.3	↑ 12.6
	양파	20kg	25,200	25,000	23,280	16,050	16,963	↑ 57.0	↑ 48.6
	당근	20kg	28,800	29,000	29,440	36,600	33,260	↓ 21.3	↓ 13.4
	대파	1kg	1,870	1,630	1,356	1,775	1,673	↑ 5.4	↑ 11.8
	파프리카	5kg	14,800	15,200	14,560	22,100	18,080	↓ 33.0	↓ 18.1
	참외	10kg	25,800	21,400	20,640	26,550	26,117	↓ 2.8	↓ 1.2
	토마토	10kg	27,000	16,400	15,120	17,500	16,487	↑ 54.3	↑ 63.8
	방울토마토	5kg	18,400	17,000	13,360	15,500	12,953	↑ 18.7	↑ 42.1
	수박	1개	19,200	15,800	14,600	15,850	16,543	↑ 21.1	↑ 16.1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41,400	41,800	42,200	39,700	50,831	↑ 4.3	↓ 18.6
	배(신고)	15kg	58,000	58,000	57,880	55,300	55,727	↑ 4.9	↑ 4.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8/07)	1주일전 (07/3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6,600	518,600	521,000	540,000	553,000	↓ 4.3	↓ 6.6
	느타리버섯	2kg	11,800	10,800	11,840	13,250	13,080	↓ 10.9	↓ 9.8
	새송이버섯	2kg	7,800	7,000	7,760	7,350	7,397	↑ 6.1	↑ 5.4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55	8,013	7,877	7,764	6,716	↑ 2.5	↑ 18.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52	2,249	2,231	2,077	1,978	↑ 13.2	↑ 18.9
	닭고기	1kg	5,033	5,089	5,467	5,534	5,661	↓ 9.1	↓ 11.1
	계란(특란)	30개	7,574	7,702	7,964	5,422	5,554	↑ 39.7	↑ 36.4
	우유	1리터	2,526	2,529	2,527	2,548	2,475	↓ 0.9	↑ 2.1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8. 0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240 천원	5,404 천원	5,862 천원	↑ 3.0	↑ 10.6
	거세	6,863 "	6,708 "	7,028 "	↑ 2.3	↑ 2.3
송아지 (6~7월)	암	3,058 "	2,930 "	3,025 "	↑ 4.4	↑ 1.1
	수	3,686 "	3,641 "	3,911 "	↑ 1.2	↑ 5.8
육우(600Kg)		2,747 "	2,701 "	3,209 "	↑ 1.7	↑ 14.4
젖소수송아지(7일령)		141 "	149 "	151 "	↑ 5.4	↑ 6.6
돼지(110kg)		480 "	453 "	419 "	↑ 6.0	↑ 14.6
육계(원/kg)		1,371 원	1,603 원	1,814 원	↑ 14.5	↑ 24.4
계란(원/특란10개)		1,727 "	1,744 "	1,066 "	↑ 1.0	↑ 62.0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단감 과원의 수고 낮추기에 의한 생산비 절감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단감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종합기술 정립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수고 낮추기 : 기존 4~5m 수고를 3m 이내로 낮추며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수세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음
- 전정방법 개선 : 주지갯수 단축 및 큰가지 숙음 위주의 전정으로 전정 시간을 줄이며 결과지 선단 절단으로 적과노력 35% 절감 가능
- 하계전정 : 생육 초기부터 도장성 가지 제거 및 하계전정 시 도장지 50% 이상 제거로 광환경 개선과 결과지 충실도 향상
- 착과량 증진 : 수관하부 결과지 구성을 위해 가지비틀기로 결과지 형성 및 이듬해 착과로 수량 증수

□ 기대 및 파급효과

- 전정·적과노력 35% 절감 및 대과생산 비율 67% 증가
- 경제성 분석 : 소득 증가액 807,000원/10a



수관하부 결과지 생성 및 착과상황(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김병삼, 조정철

■ 양파 기계 정식을 위한 육묘 시 추비관리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 재배면적 9,171ha(전국 18,015ha의 50.5%), 소득 194,182백만원 (2백만원/10a) 생산량 569,472톤(전국 1,298,749톤의 43.8%), 생산액 2,068억원의 중요 작물
- 양파 생산비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 되고 있어 양파 재배 기계화를 위하여 육묘기간 중 적정 추비 관리법 구명이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추비 관리 및 재배 방법

육묘기	트레이규격	추비 횟수	추비 시기	추비 농도 및 방법
9월 초~ 11월 초	448공	요소 3회	파종 후 4, 6, 8주	질소성분(N) 46%의 1,000배 희석 액비 엽면시비

※ 기타 관리는 양파 표준재배 육묘법에 준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요소 3회 수량 5,552kg/10a(무처리 4,436kg/10a 대비 25.1% 증수)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 44,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일수 증가에 따른 노력 및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 6,470원 = 19,410 ※ 단가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70원 최저시급('16) - 요소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kg/1포 =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 753,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증수 1,116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6 × 675 = 753,300원 ※ 단가산정 : 8월 가락동 시장 가격
○ 추정수익액(B-A) : 753,300 - 44,410 = 708,890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김효중, 손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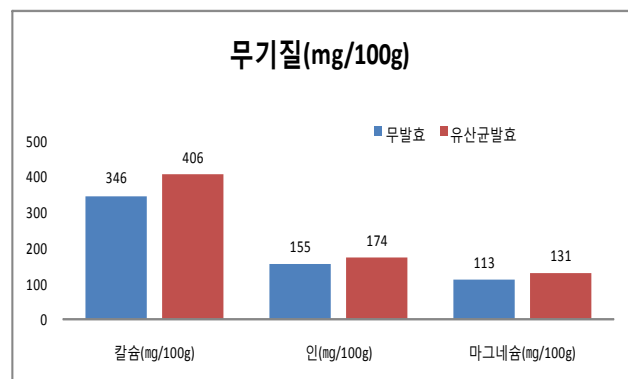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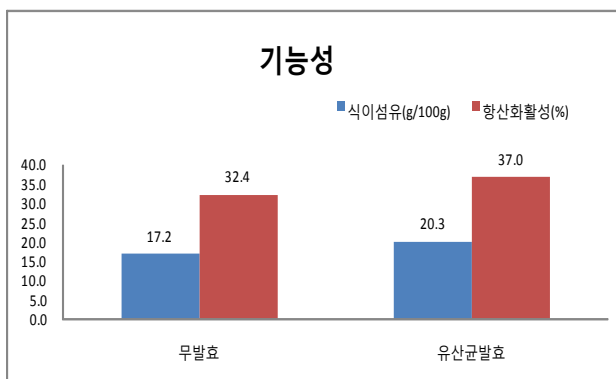
■ 고식이섬유 무화과 열매의 발효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지역 무화과 재배면적은 전국의 94%를 차지하는 특산물임
- 무화과 열매의 단순한 단맛을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기호도와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발효제품 개발이 필요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무화과 열매를 이용한 발효방법
 - 무화과 열매의 동결건조 분말을 7배로 희석한 후 유산균 *Lactobacillus fermentum*을 2% 첨가하여 37℃에서 2일간 발효
- 무화과 열매 유산균 발효 효과
 - 발효 후 식이섬유 함량 18%, 항산화활성 14%, 무기질 함량 12~17% 증가



무화과 열매 유산균 발효 특성(2016)

□ 기대 및 파급효과

- 무화과 열매의 기호성과 식이섬유 함량을 높이는 유산균 발효 조건 제시
- 우리 도 특산물 무화과의 기호성 향상으로 소비촉진 및 애로기술 해결
- 우리 도 특산자원 이용 기능성 발효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이유석, 이선경, 지수현, 조정숙

■ 정원장미(케이원)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정원장미 시장규모 : 80억원(세계시장 2조원)
- 휴식공간 확보와 전원주택 조성 등으로 정원장미 수요 증가
- 국내 육성품종이 없어 유럽품종 도입으로 해외 로열티 창출

□ 품종 주요특성

- 중형 플로리반다계 정원용으로 열린컵형의 연분홍황색 장미임
- 넝쿨, 관목형으로 생육이 왕성하고 번식이 용이함
- 줄기 굵기가 일정하고 흑반병, 흰가루병에 강함
- 수세가 강하며 향기가 중간정도이며 관상기간이 김



【케이원 개화】



【더제너러스가드너 개화】

□ 재배상 유의점

- 적정 재식밀도 60×100cm를 유지해야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하계 고온기 재배 시 장마와 가뭄에 대비하여 적절한 수분관리가 필요함
- 안정적 재배를 위해 주기적인 노균병, 흰가루병 등의 병해충방제 필요
- 겨울철 영하의 추위로 인한 동해 예방을 위해 복토 등의 조치가 필요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기광연, 원예연구소 이재신

■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포획장치 개발

- 설치 10일 만에 성충 2,000마리 포획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여름철 불청객인 갈색날개매미충이 대량 발생하여 과수원, 산림은 물론 도심의 상가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포획장치를 개발해서 약제를 뿌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 국내에서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퍼져나가 지금은 전국에 발생되고 있다. 그 동안 이 해충 방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충 방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변에서 수시로 날아오기 때문에 약제방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성충 유인포획장치는 곤충이 선호하는 색상과 냄새를 이용한 것으로 설치 10일 만에 약 2,000마리의 성충을 포획하는 효과가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 가능하며 설치방법 또한 용이하다.
- 우리지역에서 갈색날개매미충은 7월 상순부터 성충이 되어 약 한달 동안 먹이섭취와 교미활동을 활발하게 한 후 산란할 수 있는 기주식물을 찾아가는데, 이번에 개발한 포획장치는 성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가장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베트남 하우장성과 기술교류협약 체결

- 전남 선진농업기술 베트남에 전수 희망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8월 2일 『베트남 하우장성과 상호 농업기술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식은 르반홍 하우장성 위원장, 하이파크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농촌개발청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 농작물 종자와 유전자원 보호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인적교류, 학술논문, 과학기술 잡지 등 농업기술 정보 교류와 농작물 재배, 유통, 병해충 방제 등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 특히, 하우장성은 아열대과수 재배기술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전남은 농작물의 하이테크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장단기 연구인력 교류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하우장성은 전남과 기후가 비슷하여 농업 기술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 발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첨단농업기술은 시작단계로 한국의 발전된 최신농업기술을 자국에 전수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사료용 옥수수 적정 수확시기 놓치지 마세요

- 이삭 껍질이 마르고 유선이 2/3 정도면 수확적기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우수한 담금먹이 조제를 위한 사료용 옥수수의 적정 수확시기를 소개했다.
- 옥수수는 이삭 껍질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고 알곡의 유선(젖줄, Milk line)이 2/3 정도가 됐을 때인 호숙기 후기부터 황숙기 초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이 시기는 이삭 수염이 나온 뒤 35~42일쯤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으며, 건물비율은 30~35% 정도다. 알곡을 손톱으로 누르면 약간 들어갈 정도로 딱딱하며, 겉으로 보면 알맹이 가운데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 수확한 옥수수는 수분함량이 65~70%이며 발효할 때 원료가 되는 당 함량이 풍부해 젖산발효가 잘 일어나고 젖소 등 가축 먹이로 건물섭취량과 소화율이 높다.
- 농촌진흥청은 수입 사료용 옥수수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광평옥·청다옥·평강옥』 등의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사료용 옥수수 수확 적인 이삭 모양】



【옥수수 알곡의 유선】

■ 오디균핵병 저항성 뽕 품종 『심강』 육성

- 일반품종 대비 균핵병 1/3로 줄고 수량은 2.1배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오디 안정생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오디균핵병에 저항성을 가지면서 수량이 높은 뽕품종 『심강』을 육성했다.
- 오디균핵병은 곰팡이병으로 오디가 익을 시기에 회백색을 띠고, 팝콘처럼 커지거나 딱딱해져 먹을 수 없다. 오디균핵병 피해는 20~30% 정도로 추정되며 심할 경우 오디를 전혀 수확할 수 없다. 피해액도 연간 100억원에 달한다.
- 이번에 개발한 『심강』의 오디균핵병 발병률은 2.1%로 일반품종의 1/3에 그쳐 균핵병에 강한 특성을 나타냈다.
- 심강뽕은 오디 1개의 무게인 단과중이 2.4g으로 중과형이며, 당도는 13.8°Brix로 보통 수준의 당도를 나타냈다. 4지역에서 3년간 적응 시험한 결과, 오디 수량은 평균 274kg/10a로 심홍뽕보다 수량이 2.1배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심강』 품종에 대해 품종 보호를 출원했으며, 통상실시를 통해 올 가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오디 결실 모습(심강)】



【잎 모양】

■ 사용 편리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꿀벌통 선보여

- 먹이공급 쉽고, 크기 줄여 생산자 사용편리성 증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크기가 작은 먹이 공급형 개포(벌집 덮개)가 든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을 개발했다.
- 꿀벌, 뒤영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채소·과수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11, 19개 작목 33,268ha→'16, 26개 작목 35,045ha), 이 중 꿀벌은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관련 시장은 3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 먼저, 개발한 벌통은 먹이 공급 일체형 개포를 사용함으로써 벌통의 천 개포를 열지 않고도 사양수(물)와 화분떡(먹이)을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양봉 농민이 꿀벌에 쏘일 위험성을 줄였다.
- 또한 수직 사양기(먹이통)를 사용하는 기존 벌통은 겨울철에 땅의 냉기로 사양수가 차가워져 꿀벌들이 잘 먹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벌통은 일체형으로 겨울에도 꿀벌들이 사양수를 쉽게 마실 수 있게 했다.
- 이와 함께 기존 꿀벌 벌통은 소비(벌집틀)가 최대 10장이 들어 있으며, 사양기(먹이통)가 별도로 부착돼 있다. 개발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은 6장의 소비만 부착해 크기를 반으로 줄였다.
- 특히, 벌통 크기를 줄이면서 골이 좁은 수박 등을 재배하는데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게가 가벼워 화분매개 전용 꿀벌 생산자가 농가에 운송할 때도 운송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개발한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은 특허출원을 마치고 8월에 국내 양봉업체에 기술 이전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신규·소면적용, 무인기 활용 농약 늘려

- 무인기 농약 등 총 231품목 등록 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 상반기에 새로운 농약 51품목과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95품목을 확대해 보급했다.
- 먼저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신규 등록 농약은 탄저병, 노균병, 응애, 진딧물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 51품목이다.
- 사용 용도별로는 테부플로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17품목, 피플루뷰마이드 액상수화제 등 살충제 14품목, 글리포세이트포타슘 액제 등 제초제 15품목 석회황 분제 등 살균·살충제 5품목이다.
-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 95품목을 등록해 사용 가능한 농약 수를 늘렸다.
-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은 경제성이 낮아 농약제조 회사에서 등록을 꺼려 등록농약이 없거나 부족해 작물 수확 후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실정이다.
- 이번에 등록된 농약은 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41품목, 비펜트린 수화제 등 살충제 54품목이다. 대상 작물은 상추·들깨·부추·셀러리·겨자채·참나물 등 55작물이다.
- 이와 함께 무인기(드론)로 농약을 방제하는 기준이 없어 유인 항공기,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이용했으나, 관련 기준이 개정돼 무인항공 방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무인항공기용 작물보호제의 범위를 드론(멀티콥터)까지 포함한 관련 기준이 2017년 4월 개정됐다.
- 이에 따라 기존 무인헬기용으로 등록된 작물보호제 중 105품목은 무인기(드론)로 살포 가능하게 됐다.
- 용도별로는 폐녹사닐 액상수화제 등 살균제 40품목, 디노테퓨란 액제 등 살충제 41품목, 할로설프론메틸·메페나셋 대립제 등 제초제 18품목, 티아디닐·플루벤디아마이드·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등 살균·살충제 7품목이다.
- 관련정보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농약정보 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약의 상표명, 품목명, 병해충별, 무인기(드론) 활용 가능농약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하현영 농업사무관은 “이번에 등록·보급하는 농약은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했다”라며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일이나 쌈채소류를 비롯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병해, 예찰과 방제에 더욱 주의해야

- 장마 뒤 급속히 확산... 무엇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중요 -
- 잎이 하얗게 말라 죽어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벼 흰잎마름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장마 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벼 병해의 예찰과 방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에 벼 병해가 발생해 확산될 것을 대비해 조기진단과 예방에 힘써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전북 상습 발병지에서 발생이 확인된 벼 흰잎마름병은 잎의 광합성을 방해해 씨알이 여물지 않아 품질이 떨어지며 발병 시기에 따라 쌀 수량이 20~50% 감소된다.
- 연일 계속되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다른 지역에서의 벼 흰잎마름병 발생과 그 밖의 다른 벼 병해의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 벼 흰잎마름병은 바람이나 가뭄피해, 키다리병 증상과 비슷해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약제를 사용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병 진단이 중요하다.
- 병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상담(1544-8572) 또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3)로 문의하면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벼 흰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습 발병지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이나 직후에 약제를 살포한다. 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족시스트로빈, 페림존 계통의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
- 이 밖에도 세균벼알마름병, 벼 잎집무늬마름병, 벼 잎도열병 발생도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세균벼알마름병은 출수·개화기에 고온다습할 경우 발생이 심하며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 출수기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등 등록된 전용 약제로 방제한다.
- 벼 잎집무늬마름병은 병이 진전되면 최대 45%의 수량이 감소하므로 발병한 포기 비율이 20% 정도일 때 발리다마이신에이, 헥사코나졸 계통 등의 적용 약제로 방제한다.
- 벼 잎도열병은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붉은 빛을 띠며 생장이 멈추므로 카프로파미드, 트리사이클라졸 계통 등 적용약제를 사용해 예방 위주로 방제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초기 증상】



【후기 증상】



【발생 포장】

■ 발효사료, 물 양만 조절해도 대장균·잡균 못 자라

- 싼겨 100kg당 물 30리터 정도 넣어야 유해균↓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덥고 습한 여름철 안전하게 발효사료 만들고,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 발효사료는 원료사료(싼겨, 배합사료 등)에 유산균·효모 등 유용 미생물과 물을 넣어 만들며, 주로 소·돼지·닭 등에 먹인다.
- 고품질의 발효사료를 일반사료에 섞어 먹이면 소화가 잘 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등 생산성이 좋아진다.
- 기존에 발효사료를 접해보지 않은 농장에서는 물을 적게 넣는 경향이 있는데,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발효사료를 만들려면 반드시 유산균과 함께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야 한다. 물을 넣으면 배양과정 중에 유산균이 불어나면서 병원성 세균이나 잡균이 잘 자라지 못한다.
- 연구진이 싼겨 100kg에 액상유산균 1리터, 물 30리터 정도를 넣어 발효사료를 만든 결과, 물 15~20리터를 넣었을 때에 비해 대장균 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세균은 99% 이상 줄어들었다.
- 한편, 사료에 들어가는 유용미생물은 유통일자를 확인하고 액상 유산균은 냉장고에 보관하며 되도록 2주 이내의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사료의 배양 온도는 30~37℃가 적당한데 여름철에는 사료제조기 온도를 30℃로 맞추는 것이 좋다.

- 바깥온도가 35℃정도면 제조기가 있는 창고 안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40℃ 이상이면 미생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 발효는 보통 30℃에서 2~3일 배양하며,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특유의 상큼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지 맡아본다.
- 사료를 다 만든 뒤에는 발효사료 제조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없앤다.
- 농가에서 직접 만드는 발효사료는 축사 주위 위생환경에 따라 주변 미생물에 쉽게 오염되므로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김동운 농업연구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사료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절이므로,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발효사료를 만들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농장에서 직접 만든 가축의 발효사료】

7. 정책 동향

◆ 수용성비타민 6종 동시분석법 개발로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를 이용한 6종의 수용성 비타민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비타민은 성장이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써,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위해 필요하며, 필요로 하는 양은 소량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영양소 대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량을 섭취해야 한다.
- 결핍되거나 과잉일 경우에 그에 따른 각종 증상이 발생하여 동물 건강 및 발육 저하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 비타민은 사료첨가제로 사용된다.
- 따라서, 『사료관리법』에 등록성분으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는 사료는 비타민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기존의 비타민 분석법은 대부분 적정법, 흡광도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자간 편차가 크고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료 표준분석법 상의 비타민 분석은 성분의 개별 분석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 동시분석법 개발로 인해 사료 중 6종의 비타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분석 시간의 단축(408분→95분/점)과 비용 절감(270,000원→60,000원/점) 등 효율적인 분석으로 평가된다.

- 새로 개발된 동시다성분 분석법은 전처리 방법과 분리능이 개선되어 다양한 사료에 적용 시 정확도와 재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보편화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분석법은 각각의 머무름 시간이 겹치지 않는 것, 분석 시간의 단축과 분리능이 중요한 요인으로써, 6종의 비타민 또한 머무름 시간과 분리능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존 분석법에서는 비타민B6, 니코틴산, 니코틴아마이드만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수 있었다. 6종의 비타민을 별도의 처리 없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분리능이 좋지 않는 등 동시 분석의 한계점을 보였으나 이를 약음이온, 약양이온이 첨가된 컬럼을 이용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였다.
-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개발한 분석법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이번에 개발된 수용성비타민 6종 동시분석법은 사료의 품질 관리와 표준분석방법 개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분석 시간의 단축과 정확한 분석으로 사료 내 비타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또한 첨단 분석기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법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지원 농업인 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첫째,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5~10명),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대상사업 : 국회·감사원·수사기관 부정수급 지적사업, 2017년 예산 50억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
-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농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 대상사업 :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3분기), 농기계임대사업(4분기)

○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규모('17년 사업예산이 50억원 이상)가 크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하고, 결과 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점검

○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하였다.

* 자조금지원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 부정수급 여부 중점 점검

○ 셋째,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당자,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산지 원예체험장 포도 수확체험

- 8월 21~2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대상 7~18일 선착순 접수 -
- 순천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산지 원예체험장에서 포도 수확체험을 실시한다.
- 수확체험 신청은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선착순으로 단체 접수를 받으며, 체험료는 1kg당 5,000원(4kg 1박스 2만원)이다.
- 접수는 순천시 미래농업과 팩스(749-4682)나 담당자 메일(jjs0303@korea.kr)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o.su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포도 수확을 직접 체험하면서 수확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작물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순천시 산지 원예체험장에서는 3월부터 매실·단감·대봉을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수확 시기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소득작물 실증재배, 매실유전자원 관리를 통한 농업인 대상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새콤달콤한 매실의 무한 변신 웰니스팜 파티 열린다

- 8. 11.~12. 광양항 해양공원, 매실을 이용한 음식부터 미용제품까지 선보여 -

- 광양시는 8월 11일에서 12일 광양항 해양공원에서 매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웰니스팜 파티가 열린다고 밝혔다.
-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가 합쳐진 말로 농부가 소비자를 초대해 먹을거리와 농산물 판매, 체험 등을 하는 행사다.
- 윤동주 탄생 100주년과 시집 발견 72주년을 기념하는 『8월의 별 헤는 밤』과 연계되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11일에는 오후 6시, 12일에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 이번 웰니스팜 파티에는 매실 농장과 음식점, 카페 등 업종이 서로 다른 업체에서 참여해 매실을 주제로 음식부터 미용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는 매실 막걸리와 매실수를 넣은 각종 슬러시와 매실 커피·매실수두부·매실쿠키·매실비누·매실수스킨·매실닭강정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 정옥자 생활자원팀장은 “최근 매화와 매실의 추출물이 항산화, 항노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매실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며, “다양한 매실 제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광양 매실의 맛과 효능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사업 추진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1일 삼기면 청계리 삼기흑찰옥수수 영농조합법인에서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옥수수 가공 시연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흑찰옥수수 2,000여개를 직접 수확하여 시범사업으로 마련한 스팀찜기, 진공포장기 등의 가공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옥수수를 찌고 진공 포장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 삼기 흑찰옥수수는 30ha정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강원도산 미흑찰이라는 품종을 재배하여 생산한 것으로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한다. 곡성군은 삼기의 지역 특산품인 흑찰옥수수를 명품화하기 위해 2016~2017년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삼기흑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올해 5월 하순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과 6월 가뭄 피해로 옥수수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고, 쌀 대체작목으로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면서 가격마저 하락해 이중고를 겪었었다”며 “옥수수 가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공·저장한다면 홍수출하를 막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10,000여개의 옥수수를 가공하여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판매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안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유용미생물 활용

- 고흥군은 강소농 육성과 농림수산물산업 비전 5000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8월 4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관내 친환경 재배 농업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농작물 재배 시 토양 내 유해균의 밀도를 낮춰주고,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토양환경개선과 작물생육 증진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 축산용 유용미생물은 가축 면역력 증강 및 소화율 향상,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 악취제거 등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그 중 광합성을 하는 녹조미생물인 클로렐라는 농산물의 저장성, 당도증대, 병원성 곰팡이균의 예방 등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최근 친환경 재배농가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군에서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유용미생물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미생물 활용교육에 꼭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관련시설을 구축하고 축산용 미생물 4종(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과 작물용 복합미생물 및 클로렐라를 직접 배양해 연간 160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벼 병해충 기본방제기간 설정 적기방제 당부

- 화순군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강우로 벼 병해충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8월 6~16일, 11일간)을 설정해 적기방제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 군은 벼 출수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멸구류(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먹노린재,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을 방제대상 병해충으로 정하고 농가들에게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멸구류는 일부 포장에서 흰등멸구가 예찰되고 있으며 향후 고온 지속 시 증식에 좋은 조건이 유지됨에 따라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므로 벼대 아래쪽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뿌려 주어야 한다.
- 특히, 7월에 먹노린재가 발생했던 포장은 8월 중순 이후 어린 벌레가 어른벌레로 자라면서 숫자가 늘어나 또다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 기본방제기간에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 이삭도열병은 한번 발생이 되면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삭이 한두개 패기 시작할 때 쫓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야 한다.
- 올해 잎도열병이 발생했던 포장은 방제를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연결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화순군



■ 강진군, 슈퍼푸드 강진귀리 명품화 위해 예산 30억 투자

- 강진군이 세계 10대 건강 식품중의 하나이며 강진의 대표 농산물인 쌀귀리를 명품화하기 위해 향토산업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 강진군이 재배하는 쌀귀리는 성숙 후 껍질이 종실에서 잘 벗겨지는 귀리로, 흔히 오토밀이라고 한다. 강진에서 재배되는 쌀귀리 재배 면적은 492ha, 전국에서 쌀귀리를 재배하는 1천 200ha 면적중 강진군이 41% 차지한다.
- 전남에서는 520ha에서 쌀귀리를 재배중이며, 이중 강진군이 94% 비율을 차지해 압도적인 쌀귀리 생산지이다. 쌀귀리는 연간 23억원 매출을 올리며 농한기 벼와 이모작 재배로 농가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 앞으로 대도시 소비자에게도 판매 판로를 확대해 나가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해 쌀귀리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층을 겨냥해 나갈 계획이다.
- 쌀귀리명품화사업은 2017년부터 4년간 30억원을 귀리를 제품화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치했다. 앞으로 강진군은 대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 귀리 기능성 연구 및 상품개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을 통해 강진 대표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 쌀귀리는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베타글루칸 함량이 아주 높아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됐다. 귀리식품은 통귀리의 수용성식이섬유가 심장병인 관상동맥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다. 무엇보다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탈모예방, 피부미용에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다.

* 출처 : 강진군

■ 함평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

- 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11월말까지 포획활동 전개해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수확기를 대비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것으로 4개반 30명을 운영한다.
- 7월 31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피해지역과 주요 출몰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 군사보호구역,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 포획대상은 멧돼지·고라니·까치·멧비둘기 4종이며 피해작물 상황을 감안해 대상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 2016년에도 멧돼지 75마리, 고라니 35마리 등 총 113마리를 포획해 군민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
- 군 관계자는 “수확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함평군은 야생동물 피해를 줄여 농·임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농업인들 농약 공동방제가 효자네

- 전국 최초 전지역 공동방제 체계... 생산성 향상·고령화 문제 해결 -
- 장성군은 2015년부터 각 지역 농협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게 하고 이 공동방제단이 광역방제기, 드론 등으로 해당 지역 논에 일제히 농약을 살포하게 하는 농약공동방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방제 사업은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농약공동방제는 남의 논을 임대해 농사짓는 농업인을 포함해 장성군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의 모든 논을 한꺼번에 방제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장성군은 친환경단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지를 방제하고 있다. 공동방제 대상 단지는 약 4,000ha다.
- 군 전체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효과도 있다. 벼멸구, 이삭도열병, 흑명나방, 잎집무늬마름병 등 중점 병해충을 일제 방제함으로써 미방제 단지 병해충이 방제 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동방제는 농약 오남용도 예방한다. 농약공동방제단이 적량의 농약과 함께 대형 관정에 나오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방제 단지의 지리를 잘 아는 이장 등이 방제 도우미로 참여하는 것도 농약 오남용을 막는 요인이다.
- 공동방제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에 있다. 소규모 경작농과 고령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동시에 마을별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생산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 출처 : 장성군

9. 해외 농업정보

◆ 독일, 친환경·유기농 시장 지속 성장

- 2016년 독일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94억 8,000만유로로 전년도 매출액 86억 2,000만유로보다 9.97% 증가함
- 독일연방농식품부(BMEL)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친환경·유기농 농가 총 소득은 18억 1,000만유로로, 2014년 총 소득 16억 4,600만유로보다 약 10% 증가함
- 품목별 매출액은 유제품이 3억 5,200만유로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채소와 달걀이 각각 2억 5,300만유로, 2억 4,000만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함
- 독일 유기농협회(BÖLW)는 기존 독일 농가의 소득이 줄어든 반면 친환경·유기농 농가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여 2016년 기준 매일 약 5개의 농가가 유기농 농가로 전환 중이라고 발표함
- 독일의 대표적인 유기농식품 유통채널은 유기농 전문매장이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그 중 독일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기농 전문매장은 denn's bio(www.denns-biomarkt.de, 매장 수 215개), Alnatura(www.alnatura.de, 매장 수 119개)이며 그 외에 전문 매장들은 본사가 위치한 연방 주를 중심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전문매장 외에도 거의 모든 대형 체인형 마켓 및 식품유통점(LEH, Lebensmitteleinzelhandel)에서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고 있음

- 유기농 온라인 매장 또한 많이 늘고 있음. 온라인 매장의 2015년 유기농 신선제품 매출액은 7,000만유로로, 전체 유기농 신선제품 매출액인 50억유로의 1.3%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독일 연방농식품부(BMEL)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기농 인증 제품의 수는 7만 1,528개로 그 수가 매년 3% 정도씩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의 친환경(유기농) 대표 전시회는 'Biofach·Vivanese'임. 해당 전시회는 독일 남부 뉘른베르크에서 매년 개최되는 유기농 식품·유기농 화장품 대표 전시회임. 세계 134개국에서 5만 1,453명이 참관했으며 88개국 2,793개 업체가 참가함
- 매년 세계 유기농제품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전시회를 통해 독일 유통업체들과 연결된 제품들이 독일 유기농 트렌드를 주도할 만큼 영향력이 큼. 독일 및 유럽 유기농 시장진출의 교두보격인 전시회임
- 독일은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관련 시장 또한 매년 성장하고 있음
- 독일의 수많은 농가는 유기농 농가로 전환하고 있으며, 소비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 식품 중 자국 생산이 어려운 제품들을 수입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편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대만, 일본·네델란드·스위스산 소고기 금년 내 수입 개방 예정

- 대만 식품약품관리서(이하 식약서)는 7월 17일 『네델란드 소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 『스위스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 『일본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 초안을 발표하였고 관련 소고기 수입조건을 별도 제정하여 빠르면 9월 중순 수입 개방 관련 정식 공고를 할 예정이다.
- 동 『소고기 수입조건』 은 네델란드·일본·스위스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조건으로 네델란드산은 12개월 이하, 스위스산과 일본산은 30개월 이하의 건강한 소고기로 도살 시 특정 부위인 회장 말단부위, 편도선, 신경절, 척추, 중추 등 위험 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합격 승인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전문 수의사의 검역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모든 제품은 정부 수의사가 발부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 또한 식약서는 네델란드·스위스 및 일본산 소고기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 개방안은 서류 심사, 위험성 평가, 실지검증 및 광우병 전문가 자문 등 기술성 평가 후 관련 각 부서와의 회의 토론 추진 및 후속 조치 마련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만 시장 내 소고기의 94%는 수입산으로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파라과이산 등 여러 국가의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향후 네델란드·스위스·일본산 소고기도 기타지역 소고기 수입조건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수입 후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일본산 소고기는 2001년 일본산 와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대만 수입이 금지되었고 동 규정에 의해 16년 만에 수입 재개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8. 07.(시카고 선물거래소)

□ 2016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한 밀·옥수수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7%)

- 미국의 연질 붉은 겨울 밀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약화됨으로 인해 약세를 보이며 전일대비 0.7% 하락하였다. 밀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4주 연속 하락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8%)

- 시장에서의 매득으로 인해 전일대비 0.8%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2% 하락하였으며, 2016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률을 나타내었다.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세는 시원한 날씨에 대한 예보와 앞으로의 증가된 수확량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0.1%)

- 전일대비 0.1% 하락하였다. 대두 선물가격도 주간 하락률을 5.3% 보이며, 2016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주간 하락폭을 보였다. 날씨는 미 중서부 지역에서 우호적이었으며, 콩 시장의 약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농업 심포지엄』 개최 알림

- 농촌진흥청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7년 농업기술박람회(17. 8. 14.~15.)』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특히,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과 중국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對중국 수출애로를 극복하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출농업 심포지엄』을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하오니, 관련 수출경영체(생산단지),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 8. 14.(월) 14:00~17:00
- 장 소 :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102호
- 참석대상 : 100명 내외(수출경영체 및 농식품 수출 관련자 등)
- 주요 발표내용
(한국) 국가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방향, 수출기술지원 현안과 대응과제
(중국) 농산물 무역정책 및 미래방향, 농식품 시장구조 및 소비동향

* 출처 : 농촌진흥청

◆ 2017국제농업박람회 250여 기업유치 상황 기대

- 미국·일본 등 34개 농업선도국 등도 대거 참여-

- 올 10월에 개최될 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뜨거워지고 있다. 『2017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살거리, 즐길거리를 위한 250여개의 기업유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스라엘과 일본·네덜란드·미국 등 34개국의 세계적인 농업 선도국이 대거 참여해 국제행사로서의 높은 위상과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B2C(Business to Consumer)는 물론 국내 최대의 전문적인 B2B(Business to Business)박람회로서의 성공에도 한 발짝 다가섰다.
- 국내에서는 롯데, 이마트, CJ 등 대형유통사는 물론 NS몰, 11번가 등 온라인유통사가, 해외에서는 중국의 알리바바 등 30여 바이어를 확보하고 국내 기업 및 농가의 판로를 개척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박수철 사무국장은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과 다양한 시도를 접목했고, 전라남도과 나주시 등 여러 기관·단체가 협심해 준비해온 만큼 성공개최를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협, 2017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앞장

- 7일 사무국과 농업 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 위한 업무협약 -
-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와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8월 7일 도청에서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갑섭 행정부지사, 이홍목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17국제농업박람회 기간 동안 1천억원 이상의 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사전 구매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한다.
- 농협은 전국 220여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관련 기관으로 최근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 국제농업박람회는 2002년 국내농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국제농업박람회로 성장 발전하는 등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대표 농업박람회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 수출, 국내 구매약정, 현장 판매 등 농산업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 2015년 박람회의 경우 262억원의 해외수출 구매약정과 1천 415억원의 국내구매약정, 52억원의 현장판매 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해외 수출 314억원, 국내 구매약정 663억원, 현장판매 24억원, 총 1천 1억원의 국내·외 구매약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간 나주 소재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 출처 : 전라남도

147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지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